

‘BUY-광주·전남 운동’ 지역 우수중소기업제품을 애용합니다

광주일보는 광주시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제품 사주기 캠페인인 ‘바이(BUY)-광주·전남’ 운동을 전개한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사기 진작과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 판로 지원 등을 위해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및 기술 중소기업 10개 업체의 제품을 소개한다.

친환경·고효율 LED 등기구·형광등 생산

(주)하나투스

광주시 서구 처평동에 있는 (주)하나투스(대표 윤정주)는 LED등기구 및 형광등기구 전문 생산업체이다.

이 회사에서는 LED등기구만 튜브형·평판형·벌브형 등 수십 종을 생산한다. 지난 2004년 설립돼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나투스가 생산한 LED등은 수온과 날이 없고 5만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친환경 고효율 제품이다. 또 점등시간이 짧고 소비전력을 70% 절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백열등, 할로겐, 삼파장 형광등의 대체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나투스는 LED 보안등이나 가로등·공원등 사업도 활발하다.

그동안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와 국립소록도병원 리모델링 공사, 5·18교육관 건립공사, 나주공설운동장·여수항 여객선터미널·조선대 제2기숙사·장성 나노바이오센터 신축공사, 빛고을 실버타운 2차 조성공사, 광주시 가로등 밝기 개선 사업 등에 참여했다.

하나투스는 매년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총 매출 25억원에서 지난해 3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4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업이익도 2008년 2억원에서



2009년 3억3000만원, 올해 4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나투스는 지난 9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신기술 개발과 자체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깃대가 내장된 가로등주’ 특허와 형광등기구 KS인증, ISO 9001인증 등 각종 인증을 받았다. 현재 컨버터 내·외장형 LED 램프 및 매입형 LED등기구 안전인증과 KS심사를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 www.hanatu.com, 062-371-783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은행권 예대율 99.3%...6년만에 최저수준 기록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이 6년여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현재 15개 일반은행의 예대율(CD·양도성 예금증서 제외)은 99.3%로 2004년 6월(98.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 지난해 12월(110.7%)과 비교하면 13.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은행 자산의 유동성 및 건전성과 반비례 하는 지표인 예대율은 2005년 4분기 이후 은행들의 대출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상승, 지난 2007년 11월에는 123.6%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은행들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 CD 발행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 모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린 점도 예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이후 CD는 61조원, 원화은행채는 15조원 감소한 반면 정기예금은 93조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학력·이력 쓰면 감점, 자기소개서만 제출하세요”

증권사 신입사원 채용 절차 ‘파격’

증권사들이 신입사원 채용에 파격적인 절차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영역 성적이나 학력 등 획일적 잣대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고자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오는 13일 오후 1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홀에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순한 설명회 차원을 넘어 서류전형 등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기본적인

으로 서류 지원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해 부서장들과 취업 상담을 하면 자동으로 서류전형 통과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IB(투자은행), 트레이딩, 리서치, 리테일(소매영업), 채권영업 등 7개 부문별로 상담이 진행된다. 즉석으로 입사전형 절차 중 하나인 문제해결능력평가(PST)에 응시할 수도 있다.

솔로몬투자증권 관계자는 “영어성적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기본적인

의사를 확인하려는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상반기 공채에서는 토익과 학점 제한을 없앴 바 있다.

또 IBK투자증권은 자기소개서만으로 서류와 1차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기소개서에는 학력, 사진, 이력, 어학점수 기재란을 아예 없었다. 오히려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출신학교나 가족 배경 등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태양광 설비 제조·시공·AS 전문 벤처기업

(주)한국에텍

(주)한국에텍(대표 조애옥)은 태양열과 태양광 설비 제조·시공 및 A/S 전문기업으로 광주지역 대표적 저탄소 녹색성장 벤처기업이다. 최근 LED조명과 풍력발전 분야에 진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한국에텍은 지난 2001년 설립됐으며, 2006년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 광산업단지 내 2300여㎡(725평) 부지에 사옥과 공장을 지어 이전했다.

한국에텍은 산업자원부 ‘태양열·태양광 발전시스템 실증연구 사업’과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해 ‘추적형 태양열 원형집열기를 이용한 고효율 보일러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획득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본보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시 유망 중소기업과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됐다. 태양광 추적시스템 등 실용신안 3건, ‘태양광 LED전광판용 발전방법’ 등 특허 6건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텍은 지난해 장성군 삼계면에서 헬리오태양광발전소를 설립, 가동 중이다. 발전용량은 400kW 규모로 연간 4억원의



전력생산 매출을 올리고 있다. 회사는 풍광이 좋고 자연환경이 깨끗해 이 곳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종합전시관’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매출은 소폭 줄었다. 지난해 57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에텍은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 LED 조명과 가로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미국 LA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hkotech.co.kr, 062-973-8846.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농협 ‘NH 새희망홀씨’ 대출 저소득·영세자영업자 등에 판매

전남농협(본부장 김용복)은 8일부터 저소득·저소득 개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NH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을 판매한다.

대출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근무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고 연소득 4000만원이하 면서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 해당되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36~13.66%며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등 각각 0.2% 포인트, 신용카드, 급여이체, 청약상품 가입 고객은 0.1%포인트, 최고 1.0%포인트의 금리 감면이 가능하다.

대출실행일로부터 연체없이 대출원리금을 상실히 납부하는 고객에게는 대출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최초약정 당시 금리에서 0.1%포인트씩 감면하여 최대 1.0%포인트 감면해 준다.

또한 대출금액 범위내에서 ‘고객안심공제 IV’ 보증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패딩점퍼 하나면 올 겨울 포근”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영계주말 매장에서 올 겨울 인기 아이템으로 꼽히는 패딩점퍼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보험사 대출 연체를 2.56%...작년보다 소폭 하락

금융감독원은 9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이 2.56%로 전분기말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72%로 전분기말에 비해 0.1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8%로 0.05%포인트 상승했지만

만, 가계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약관대출 연체율이 3.99%로 0.12%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2.17%로 전분기말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09%포인트 하락한 3.14%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Footer containing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ISO, etc.),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 and a list of regional branch addresses and phone numbers.